

여러분은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1. 헨슨: 찬양은 믿는 자의 마음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2. 마틴 루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3. 토마스 맨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자극시킨다.

저에게 있어서 찬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린이 성가대에 조인해서 본격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의 어머니께서는 성가대 지휘를 30년이상 하셨는데 성가대는 당연히하는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버님께서 시무하셨던 인천 산곡감리교회에는 성가대가 10개가 있었거든요. 자라가면서 성가대는 자연스럽게 제 삶이 되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시절에는 주일 오후 2시에 어린이 오후 예배와 활동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찬양과 울동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이 참 재밌고, 말씀의 내용은 아직 기억하지 못할 때였지만 찬양의 가사에 때때로 은혜라는 걸 조금씩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그때는, 주일에도 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시켰습니다. 입시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당시에는 주일에도 아침부터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담임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주일 성수를 빠질 수가 없으니깐,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때 교회에서 학생 성가대를 했었는데, 고3때 저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비록 주일 오후부터 학교에 또 나가서 공부를 해야했지만, 그 주어진 시간을 더욱 집중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번도 담임선생님께서 제가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저에게 뭐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주일에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 그 곡이 고3 바쁜 한주를 지내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 하나 하나를 되새기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는데! 그 때의 감동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때까지는 찬양이라는 것이 제가 좋아서 제게 유익하고 힘이되니까 했는데, 나중에 되어서야 찬양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마땅한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 관해 첫번째 포인트는 1.전에는 제가 찬양할 수 있을 때만 또 하고 싶을 때만 찬양했었는데, 이후에는 찬양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큰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했던 것을 봅니다. 시편 말씀을 읽으실 때는 특별히 사무엘서와 함께 읽어 나가시면 새로운 감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편 중에서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사무엘서와 시편을 같이 읽어보면 이를 통해서 다윗의 삶, 그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그의 감정들을 함께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개인의 삶과 쉽게 연결해 볼 수 있어서 좋지요!

다윗하면 골리앗을 물매와 조약들로 쓰러뜨린 용맹한 소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왕이기도 하고, 많은 시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이 신앙적으로 참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 다윗의 좋은 점을 배우고 사울의 나쁜 점은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반면교사 삼아야겠지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입장과 입지, 이해 관계를 위해 때때로 필요한 대상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 하나 아릴 수 있는 분이고, 의지하는 분이고, 또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찬양하는 분임을 보게 됨

니다. 사울왕의 삶에서는 아주 딱딱딱딱 나라에 전쟁이 있다던지 큰 일이 있을 때만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다시말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형식적으로 찾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으로써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그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평생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평소에 “할렐루야” 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미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히브리말로 찬양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찬양하다, 빛나다, 높이다, 자랑으로 여기다,” 여기에 하나님(야훼)을 뜻하는 [야]가 합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2.찬양에 대한 두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도한데, 사울의 입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진실함이 담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평소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하지만, 사울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봐요. “나의 하나님” 과 “당신의 하나님” 의 차이인거예요!

또한 찬양과 얼핏보면 비슷해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 중에 ‘아부/아첨(flatter, butter up)’이 있어요. 위키낱말사전에서 “아부” 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과장된 칭찬을 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다.” 한마디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직장 상사가 사람이 참 별로인데, 그 사람

앞에서는 최고다 잘했다 멋지다 말해주는 거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해도 그 사람 앞에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찬양이 아니라 아부 혹은 아첨인거죠. 사울 왕이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으로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혹은 나의 이해 관계를 위해서 꺼내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속상할 때도 기도로써 대화하는 분이고, 울적할 때도 가장 먼저 찾는 분이되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고, 여러분 찬양의 대상이 되심을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할렐루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할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찬송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손을 내민다” 는 뜻입니다. 우리는 “찬송” 이라는 말을 들으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해주는 찬양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은 ‘주님께 나의 손을 펼칩니다/내 손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가령,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시작과 끝에 그리고 그 중심과 다윗 그의 삶 전체에 여호와/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이 항상 계셨다는 것이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여러 번 고백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에서 의지하다는 히브리말로 [카바] 라고 해요. 이 단어의 뜻은

‘묶다’ 에요. 다시말해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주님과 함께 묶는 것’ 입니다. 이것이 찬양에 대한 3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두려웠을 때, 낙심해 있거나 다른 곳 이곳 저곳 기웃거리는 삶을 산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그 자신을 함께 꿰뚫 묶었다는 의미지요! 어수선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엮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를 세상의 재물과 함께 묶는 것도 아니요, 명예에 묶는 것도 아니요, 지식이나 욕망에 묶는 것도 아니요, 인맥에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되시는 주님과 함께 묶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데서 위로와 도움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욕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죄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자꾸 나아가고 의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비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러져도 아주 옆드러지지 않았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감같이 다시 흥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많은 시편, 그 많은 찬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새 힘을 얻고, 결국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았다는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찬양과 아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이는 결단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요,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의 삶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는 웨어필드 그레이스 연합감리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